

익산역

‘파과광!’

1977년 11월 11일 밤 9시 15분 호남선 전북 이리역 (현 익산역)에서 지축을 뒤흔드는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.

그 시간에 온 국민의 이목은 제11회 아르헨티나월드컵축구 최종예선 한국 대 이란 경기가 생중계되는 TV에 쏠려 있었죠. 이리역 주변은 큰 폭음과 함께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.

폭발 현장 반경 약 8km가 쭉대밭이 되고 깊이 10m, 직경 30m 정도의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폭발 위력은 엄청났습니다. 사망 59명, 중상 185명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. 집이 부서져 천막생활을 하며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이재민도 8천 명에 육박했습니다. 그런데 참사의 원인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.

다이내마이트 등 화약류 1천250상자, 30t가량이 실린 사고 화물열차의 호송담당자가 술을 마시고 열차에서 촛불을 켜 놓고 잠든 것이 폭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. 대형참사를 겪었던 이리역은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. 이듬해인 1978년 11월 10일 이리역 새 역사가 준공된 것이죠. 그리고 1995년 9월 1일자로 이리역은 익산역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.

2014년 11월에는 호남고속철도 역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. 지난 40여년간 익산역 주변의 변화상을 사진으로 더듬어 봅니다.



1977년

이리역 폭발사고 다음날 상공에서 내려다본 사고 현장. 큰 구덩이가 생겼고 주변 건물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. 1977년 11월 12일 [연합뉴스DB]

초겨울 추운 밤을 뜯는으로 지새운 이재민들이 날이 밝자 급히 마련된 구호소 앞에서 끓인 라면을 받아먹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. 1977년 11월 12일 [연합뉴스DB]



1977년

하루아침에 집을 잃어 세간살이를 길버닥에 쌓아둔 채 망연자실한 이재민 1977년 11월 12일 [연합뉴스DB]



1991년

2015년

교통 요충지로 새롭게 변모한 이리역과 주변 시가지 모습 1991년 3월 22일 [연합뉴스DB]

호남고속철도 역사로 새롭게 탄생한 익산역 2015년 7월 18일 [코레일전북본부 제공]



익산역 구내에 세워진 이리역폭발 희생자 추모탑 2018년 10월 20일 [독자 제공]